



[보도자료]

항공사들 각국 정부에 국제 탄소감축 계획 시행 촉구

-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결의안 채택 -

서울 (2019 년 6 월 2 일) – 국제항공운송협회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; 이하 IATA)는 제 75 차 연차총회에서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합의한 ‘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’ (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; 이하 CORSIA)의 전면적 시행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고 밝혔다.

CORSIA 는 최초로 민간부문에서 도입된 국제 탄소가격제 기구로서 항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스 양을 2020 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의했다.

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(Alexandre de Juniac) IATA 사무총장 겸 CEO 는 “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운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탄소 저감 계획이 필수임을 항공사들도 인지하고 있다.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의 목표를 반영하듯 항공수요의 증가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진다. CORSIA 는 탄소배출량을 2020 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탄소 저감 노력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. CORSIA 를 통해 2020 년부터 2035 년까지 25 억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최소 400 억 달러의 효과를 창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IATA 는 금번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에게 ▲CORSIA 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시장경제기반의 유일한 국제제도로 시행하고 일방적인 탄소세 부과와 같이 중복되는 기타 조치 지양, ▲시험단계인 CORSIA 에 자발적인 참여 고려, ▲중복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왜곡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시, 보고, 검사에 관한 국내규제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CORSIA 기준에 맞도록 정비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.

“CORSIA 는 기념비적인 성취이며 국제항공 탄소배출 동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전이다. 각국 정부들은 일관되지 않은 시행이나 추가 세금부과 등으로 원칙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. CORSIA 는 항공분야에서 탄소배출량 증가를 막기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전했다.

IATA 는 CORSIA 에 그치지 않고 2050 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2005 년 수준의 절반까지 줄이는 향후의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. 이에, 항공사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연료효율 관련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“CORISA 는 항공분야의 탄소발자국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. 이 목표만으로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2050 년까지 순배출량을 2005 년의 절반까지 줄이는 우리의 다음 목표는 더욱 중요하다. 항공사들은 이미 이 새로운 목표를 위해 항공기를 새로 구입하고, 운항법을 개선시키고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.



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지만 각국 정부들의 정책조정 역시 필요하다. CORSIA 와 발 맞추어 비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상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”며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###

미디어 문의

[IATA]

Albert Tjoeng / Assistant Director, Corporate Communication AP / tjoenga@iata.org

[국내 홍보 대행사 케첩] SKR-IATA@ketchum.com

신혁수 사원 / David Shin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03

김승윤 사원 / June Kim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27

김성이 부장 / Sunny Kim, Account Director / 02-559-9621